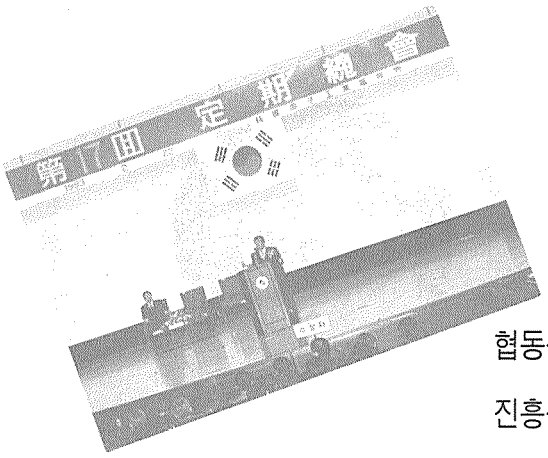


전자공업발전

전자공업대상 : **대덕전자,** 김정식 사장

협동상 : **CATV기기산업 協,** 배석채 회장

진흥상 : **부품종합기술 硏,** 이홍부 본부장

「제1회 올해의 전자공업대상」에 김정식 대덕전자(주) 사장, 협동상에 배석채 동양텔레콤(주) 사장, 진흥상에 이홍부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사업본부장이 각각 수상했다.

본회는 지난 2월 22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 제17회 정기총회에서 제1회 올해의 전자공업대상 시상식을 갖고 김정식 대덕전자(주) 사장을 첫번째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등 지난해 전자산업 발전에 공이 큰 86명을 포상했다. 전자공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전자공업 활성화를 도모키위해 올해부터 새로 재정, 시행케 된 이날 시상식에서 김정식 대덕전자(주) 사장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내실있는 경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배석채 CATV기기산업협의회 회장은 전자업체 상호간 협력과 공동사업추진 등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협동상을, 이홍부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본부장은 전자공업육성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진흥상을 각각 받았다. 이밖에 수출·기술·기능·근로 등 4개 부문의 각 부문별 우수상 수상자 총21명이 수상했으며 수출부문에서 김상수 성문전자 등 3명이 기술부문에서 황범현 (주)뉴맥스 차장 등 2명, 기능부문에는 김동교 동형전선(주) 기좌 등 6명이 근로부문은 이환성 대덕전자(주) 반장 등 10명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이우일 경북대 전자공학과 교수 등 5명에게 전자공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감사패를 증정하고, 박창권 소형모터연구조합 이사장 등 57명에게 회장 특별표창을 수여했다.

앞으로 본회는 전자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전자공업인을 발굴, 노력을 치하하고 사기를 진

유공자 표창

작시켜 전자공업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공업대상을 매년 수여키로 했다. 이같은 대상 제정은 특히 국내 경기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국내전자업체가 심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전자산업경쟁력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부문별 우수상 및 공로패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수출부문

성문전자(주)	이사	김상수
대우전자(주)	팀장	구순모
금성일렉트론(주)	과장	임지용

◇ 기술부문

(주)뉴맥스	차장	황범현
삼성전자(주)	선임연구원	김태수

◇ 기능부문

대한노블전자(주)	사원	김재용
(주)유유	사원	문종혁
코리아써키트(주)	대리	오복선
동형전선(주)	기좌	김동교
(주)금성사	지도직	강영석
삼성전자(주)	사원	최종백

◇ 근로부문

삼영전자공업(주)	계장	경용선
한국트라콘(주)	과장	구청
대덕전자(주)	반장	이환성
태일정밀(주)	사원	전옥진
금성정보통신(주)	사원	전성근
(주)인켈	주임	윤재명
금성통신(주)	반장	박영대
삼성전자(주)	직장	전남홍
대우전자(주)	직장	오창근
(주)금성사	반장	권윤철

◇ 공로감사패

경북대 전자공학과 교수	이우일
신신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우찬호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탁승호
관세청 서울세관 반장	한성일
관세청 서울세관 반장	김진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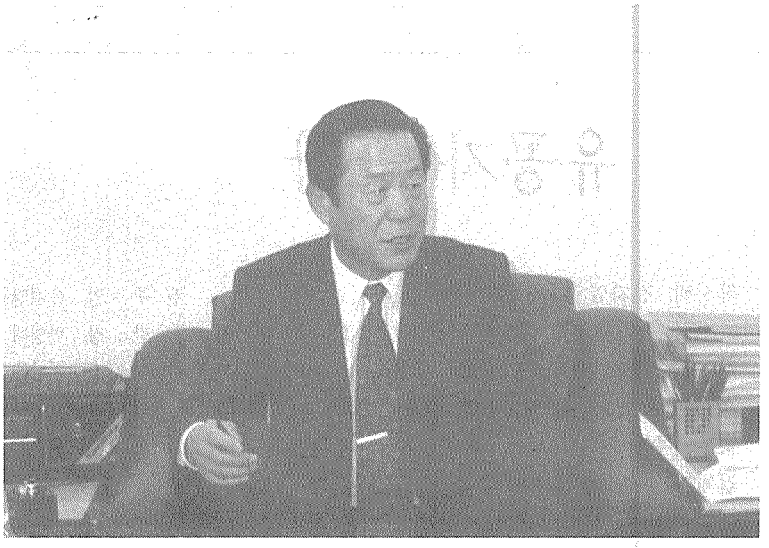
◇ 회장 특별 표창

소형모타연구조합	이사장	박창권
부품산업협의회	분과위원	김한수
컴퓨터산업협의회	분과위원	민창기
HA산업협의회	분과위원장	이창우
가전산업협의회	분과위원	오희순
전자통신연구소	실장	홍성준
동양정밀공업(주)	대리	박길우
전자공업진흥회	과장	김성복
전자공업진흥회	대리	이시백
(주)기쁜	부장	양승팔
신와무역(주)	대표이사	김종진
삼성휴렛팩커드	이사	이강준
대덕전자(주)	부장	서덕기
대덕산업(주)	부장	정구호
금성정보통신(주)	부장	주석희
아남전자(주)	부장	음인정
금성통신(주)	부장	안병한
금성일렉트론(주)	부장	정창석
(주)금성사	과장	함상헌
삼성물산(주)	사원	정준용
현대전자(주)	과장	김명재
(주)메디슨	연구소장	이승우
성미전자(주)	연구소장	이승섭
건아기전(주)	선임연구원	이상만
신한전자(주)	계장	이광욱
동일전자통신(주)	부장	현정배
창성기업	부장	박광호
히로세코리아(주)	대리	김재성
대덕전자(주)	대리	정두화
대덕산업(주)	대리	안정남
(주)유유	대리	임현철
흥창물산(주)	과장	김동명
지원산업(주)	과장	방명수
동형전선(주)	사원	정종목
(주)인켈	주임연구원	조태욱
아남전자(주)	수석연구원	김기환
금성일렉트론(주)	책임연구원	유영준
(주)금성사	부장	이영하
현대전자(주)	책임연구원	안승한
창성기업	차장	황경택
코리아써키트(주)	반장	이성현
흥창물산(주)	계장	조규범
경일엔터프라이즈(주)	주임	이돈구
대덕전자(주)	부반장	이승호
대덕산업(주)	대리	안희철
지원산업(주)	과장	이세욱
금성통신(주)	사원	강호일
골든콘넥터산업	사원	배소현
동양전자초자(주)	과장	김진태
지원산업(주)	사원	서정미
경인전자(주)	사원	김광수
히로세코리아(주)	계장	강석동
대덕산업(주)	사원	김광현
동일전자통신(주)	부장	박정우
동형전선(주)	부장	박재택
현대전자산업(주)	사원	함경복
삼성전자(주)	사원	권오익

제1회 전자공업대상 수상

대덕전자(주)

김정식 사장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내실있는 경영에 기여

제1회 전자공업대상을 수상한 대덕전자(주) 김정식 사장은 국내 전자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산증인이다.

또한 김정식 사장은 지난 '65년 현재 계열사인 대덕산업을 설립, 30년 가까이 국내 PCB산업발전에 헌신해 온 전자공업인으로 전자업계의 원로중의 한 사람이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김정식 사장의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내실있는 경영성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한 경영인으로 평가돼 영예의 전자공업대상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첨단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인간중심의 경영을 추구하는 경영혁신운동을 통해 견실한 성장을 이룩한 공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56년 서울대 통신공학과를 졸업한 엔지니어인 김사장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부문에 매년투자 이미 일본 수준인 16층 기판의 개발을 완료했다. 동사는 또한 그동안 전개해 온 기업내 생산성 및 품질향상, 원가절감, 기술수준 30% 제고 운동인 「FINE 30 운동」을 지난 '89년부터 도입해 활발히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경영혁신운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이 550억원으로 '91년대비 2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순이익도 3.2%가 증가하는 성장을 이룩했다.

또한 전자산업의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인한 PCB 제품의 기술추이가 고밀도, 다층화되어감에 따라 지난 '89년까지 364억원 상당의 설비투자로 최신설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왔다. 또한 '91년부터 매년 매출액대비 약 3%인 14억원을 순수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면서 고도기술제품인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운명체의 경영이념인 안정된 평생직장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해 인간중심의 기업경영을 통해 보람차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김사장은 또한 사원들의 복지문제 해결에 적극나서 현재 30억원의 기금을 마련, 이 기금으로 「대덕전자 복지기금」을 설립, 사원의 주택자금지원, 경조사 지원 등을 해왔다.

CATV기기
CATV기기산업협의회
배석채 회장

제1회 전자공업 대상 협동상 수상

CATV 업체간 공동협력 사업 추진 성과 높여

배석채 CATV기기산업협의회 회장(동양텔레콤(주) 사장)은 한국형 CATV 공동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동상을 수상했다. 배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ATV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6월 CATV 기기 산업협의회의 창립을 주도, 한국형 CATV 공동개발사업을 이끌어왔다.

동협의회는 업계간 콘소시엄을 구성, 가입자관리시스템 및 망감시시스템, 광대역증폭기 등의 국산기기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한국전자전람회(KES)에 업계공동으로 CATV공동전시관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산기자재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국산기기 보급활동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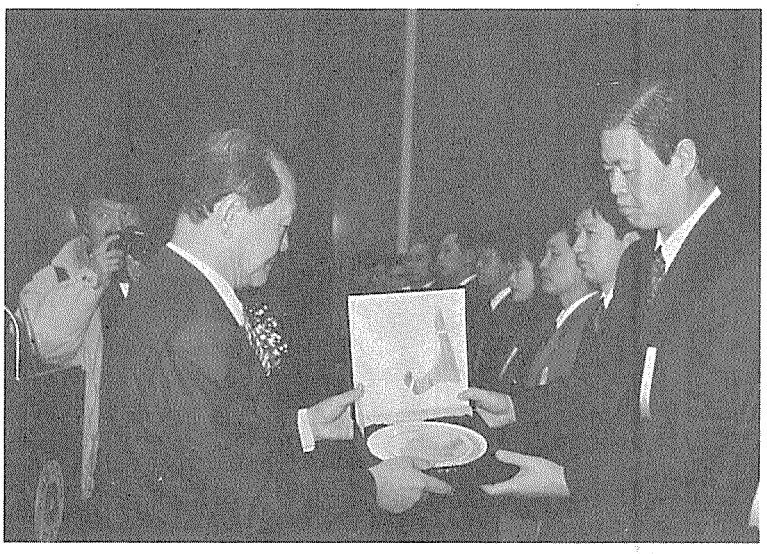
배회장은 '74년 동양텔레콤 대표 취임이후 CATV관련사업을 추진 난시청지역 해결을 위한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쌍방향 종합유선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추진에 발맞춰 CATV기기 국산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현재 국내 CATV기기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국내에서 종합유선방송이 본격 개시되면 외국산 CATV시스템이 국내에 물밀듯 밀려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CATV시스템의 국내 기술자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업계전문가들은 국내에 종합유선방송이 본격 실시될 경우, 국산화가 가능한 분야가 전송분야일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스튜디오 설비나 프로그램제작쪽은 워낙 국내기술과 외국기술의 격차가 심해 당분간 따라잡기가 힘들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전자업계가 CATV기기산업협의회에 주목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더구나 국내업계가 외국제품과의 경쟁을 의식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 자체가 국내 현실에서는 드문 일이다. 배회장은 이 같은 상황인식 아래 CATV기자재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국산기기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현재 CATV전문 중소업체인 동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배회장은 지난 74년부터 줄곧 MATV(공시청 안테나)와 CATV사업에만 주력해 오면서 국내 TV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1회 전자공업대상 진흥상 수상

전자부품종합
기술 연구소

이홍부 사업본부장



전자공업육성 발전에 공헌, Electro-21 Project 주도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이홍부 사업본부장은 KETI 설립의 산파역을 했으며 정부가 국내 전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전자핵심기술개발사업을(Electro-21 Project) 입안 주도하는 등 전자공업진흥의 기반조성에 기여한 바가 커 진흥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본부장은 '78년부터 전자공업진흥회 진흥이사를 역임하며 전자공업진흥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헌신해 왔다. 또한 임기중인 '87년엔 전자수출 1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전자업계의 공통애로기술과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업계공동기술연구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부품연구소 설립을 추진, '91년 8월,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를 탄생시키는 데 공헌했다. 연구소 출범과 함께 기획단장으로 취임한 이 본부장은 공공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 기반확충에 기여했으며 정부와 업계가 공동참여하는 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본부장은 '64년 연세대를 졸업하고 상공부('65~'76. 10), 전자공업진흥회('76. 11~'92. 4),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92. 4~현재) 등에서 30년 동안 전자산업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특히 '92년에는 수출 200억 달러 고지를 달성하는 전자산업의 양적,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첨단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상품화기술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당면과제 해결에도 열정을 쏟았다. 21세기의 선진기술국진입을 목표로 계획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Electro-21 Project」는 액정소자 등 18개 전자핵심기술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본부장은 "최근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연구풍토 조성에 적극 나서는 등 연구소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해 활동방향 정립과 효율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